

"손님 대접 허술해"

등록 : 2011년 12월 01일 (목) 09:14:23
최종수정 : 2011년 12월 01일 (목) 09:14:23

고 미 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○…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대거 제주를 찾은 가운데 정작 '제주 잠녀·잠녀문화 세계화'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 관련 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빈축.

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출범 등에 맞춰 한국에 온 전문가들이 일정 중 제주 잠녀 체험 등을 포함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데 반해 도 차원의 대응은 미미했기 때문.

한 관계자는 "제주잠녀의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"며 "찾아온 '손님' 대접이 너무 허술하다"고 쓴소리.